

AI란 무엇인가

: 목회자를 위한 신학적 이해



에스라 김
백석대학교 교수, 구약학

경북대학교^{B.A.}를 나와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Div., Ph.D.}에서 구약학을 공부했으며, 그 중간에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에서 성서학을 전공했다. 현재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이며, "시목회컨설팅그룹"^{aipcg.org} 대표로 섬기고 있다.

어느 주일 오후,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다. “목사님, 저는 요즘 ChatGPT랑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가끔 이 AI가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AI도 영혼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목사님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성경 본문에 관한 질문이라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지만, AI라는 낯선 영역에서 던져진 신학적 질문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장면은 더 이상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들은 AI로 숙제를 하고, 직장인 성도들은 업무에 AI를 활용하며, 어떤 이들은 외로울 때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다. 이러한 시대에 목회자가 AI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성도들의 삶과 고민에 적절히 응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글은 AI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어떤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인공지능, 그것이 알고 싶다

AI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영화 속 로봇을 떠올린다.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며 때로는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 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그런 존재와는 거리

가 멀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AI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라고 불린다. ChatGPT, Claude, Gemini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AI가 작동하는 원리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한 글자를 입력하면 다음에 올 단어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저녁”이라고 치면 “뭐 먹을까”, “회의 있어요” 같은 문장이 추천된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이 “오늘 저녁” 다음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생성형 AI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다만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정교할 뿐이다.

미첼(Mitchell, 2019)은 현대 AI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언어의 패턴을 학습한 뒤, 주어진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마치 수백만 권의 책을 읽고 언어의 패턴을 익힌 학생이 빈칸 채우기 시험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AI의 능력은 놀랍다. 복잡한 질문에 조리 있게 답하고, 시를 쓰고, 코드를 작성하며, 여러 언어를 번역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그마크(Tegmark, 2017)는 현재의 AI를 '좁은 인공지능'(Narrow AI)이라고 부른다.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지만, 인간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사고하는 '일반 인공지능'과는 다르다는 의미다. 체스를 두는 AI는 세계 챔피언을 이길 수 있지만, 왜 체스가 즐거운지는 알지 못한다.

현재의 생성형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AI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둘째, AI는 의식이나 자아가 없다. AI가

“나는 행복해요”라고 말해도, 그것은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맥락에서 적절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셋째, AI는 도덕적 주체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철학자 존 설(Searle, 1980)은 유명한 ‘중국어 방’ 사고실험을 통해 이 점을 설명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방 안에서 규칙집만 보고 중국어 질문에 답한다면, 밖에서는 그가 중국어를 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설은 현재의 AI가 바로 이 방 안의 사람과 같다고 주장한다.

2. 신학의 눈으로 바라본 인공지능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독특성

성경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한다. 창세기 1:27은 선언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미들턴(Middleton, 2005)은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이 관계 안에서 다른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그렌츠(Grenz, 2001)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 안에 계신 분이므로, 인간도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에 비추어볼 때, AI는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AI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없다. 헤르츠펠트(Herzfeld, 2002)는 인간이 AI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면서

도, 인간의 창조물인 AI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존재와 동등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문화 명령과 기술의 사용

창세기 1:28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신학자들은 이를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가꾸고 발전시킬 책임을 받았다.

슈어만(Schuurman, 2003)은 기술 발전이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AI 역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으로 개발한 도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엘룰(Ellul, 1964)은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그 자체로 자율적인 힘이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술이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AI를 사용하되, AI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기도와 말씀 묵상, 성도와의 인격적 만남은 어떤 기술로도 대신할 수 없는 목회의 핵심이다.

AI의 한계: 영혼과 구원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AI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 AI는 영혼이 없다. 창세기 2:7은 기록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AI는 인간이 만든 회로와 코드로 구성되어 있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가 아니다.

또한 AI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로마서 5:8은 말한다: “우리가 아직 죄

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과 구원은 인간을 향한 것이지, 기계를 향한 것이 아니다.

3. 윤리적 질문들

진정성의 문제

목회자가 AI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윤리적 질문은 진정성(authenticity)의 문제다. AI가 설교문의 초안을 작성했다면,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것은 ‘나의 설교’인가? 설교는 단순히 성경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체화한 뒤에 회중에게 선포하는 행위다. AI는 연구 보조 도구로 사용하되, 최종적인 메시지는 반드시 목회자 자신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플로리디(Floridi, 2014)는 정보 시대의 윤리를 논하면서, 기술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정직함이 핵심적인 덕목이라고 강조한다. 목회자는 AI 시대에도 이러한 덕목을 실천해야 한다.

정보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AI는 때때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보인다. 목회자가 AI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보를 검증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2:15는 권면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한 성도의 개인적인 상황을 AI에 입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서버에 저장한다. 목회적 비밀 유지는 목회자의 기본적인 윤리이며, AI 사용이 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4. 나가는 말

이 글을 시작할 때 소개한 청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AI도 영혼이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AI는 놀라운 기술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존재가 아니다. 영혼이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목회자들이여, AI 시대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러나 동시에 분별력을 갖 추시라. 잠언 2:6은 말한다: “대저 여호와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새로운 기술 앞에서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거부도, 무조건적인 환영도 아닌,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다.

다음 호에서는 실제로 성경 연구와 설교 준비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호에 계속 >>

* 참고문헌

- Ellul, J. (1964). *The Technological Society* (J. Wilkinson, Trans). Vintage Books.
Floridi, L. (2014). *The Fourth Revolution: How the Infosphere Is Reshaping Human Re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Grenz, S. J. (2001).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Imago Dei*. Westminster John Knox Press.
Herzfeld, N. L. (2002). *In Our Imag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uman Spirit*. Fortress Press.
Middleton, J. R. (2005). *The Liberating Image: The Imago Dei in Genesis 1*. Brazos Press.
Mitchell, M.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A Guide for Thinking Humans*. Farrar, Straus and Giroux.
Schuurman, E. (2003). *Faith and Hope in Technology* (J. Vriend, Trans). Clements Publishing.
Searle, J. R. (1980). “Minds, Brains, and Program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3), 417–457.
Tegmark, M. (2017). *Life 3.0: Being Huma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fred A. Knopf.
Waters, B. (2006). *From Human to Posthuman: Christian Theology and Technology in a Postmodern World*. Ashgate Publishing.